

추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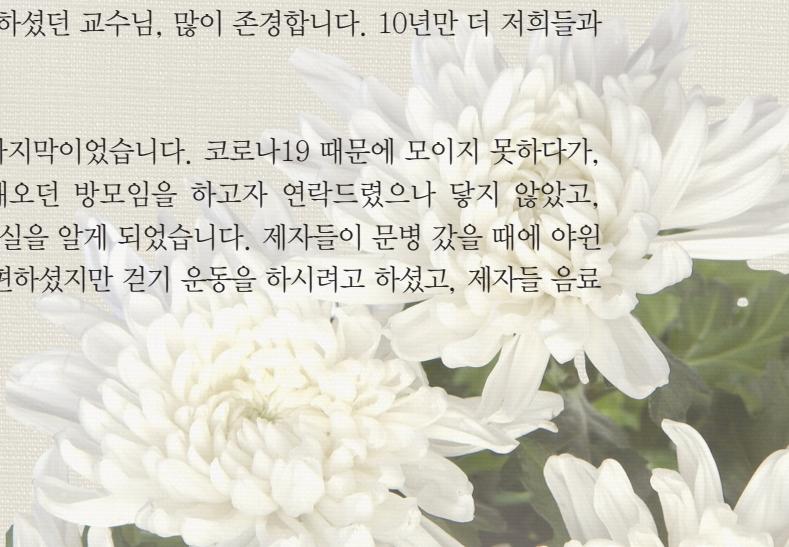
故 김진우 교수님을 추도하며

김진우 교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승님.
글을 쓰려니 마음이 먹먹해지고 슬픔의 눈물이 흐릅니다.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지니고 계셨고, 인자하시고 자상하셨던 교수님, 많이 존경합니다. 10년만 더 저희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2022년 12월, 교수님 댁 근처에서 제자들과의 모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많은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후, 꾸준히 해오던 방모임을 하고자 연락드렸으나 뒹지 않았고, 2024년 3월 말씀 교수님 장남을 통해서 입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문병 갔을 때에 애원 모습이셨지만 웃으시면서 반가워하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셨지만 걷기 운동을 하시려고 하셨고, 제자들 음료 대접을 하시려고 하셨던 자상하신 우리 김진우 교수님...



김진우 교수님(1933. 12. 28 ~ 2024. 6. 17)은 평생 염색가공을 연구하셨고, 한국섬유공학계의 중진으로서, 염색가공계의 권위자로서 인정받으셨고 영향력도 상당히 있으셨습니다. 1956년 서울대 섬유공학과 공학사 1968년 한양대 공학석사, 1973년 한양대 공학박사를 하셨고, 1957년부터 1965년까지 무영산업(주), 동인염색가공(주)에서 근무하셨습니다. 1965년 한양대학교 섬유공학과 전임강사를 시작으로 1998년 교수 정년 퇴임, 명예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와세다대학 연구원('68.10~'70.10), 동경공업대학 연구원('73.8~'74.8)으로 근무하셨던 경력도 있으십니다.

1966년부터 30년간 공업표준심의회 전문위원 역임, 1981년부터 90년대 초반까지 과학기술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상공부 섬유공업발전민간협의회 위원, ISO/TC38 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1984년부터 2년간 한국섬유공학회 12대 회장을 하시면서 내실 있는 운영으로 탄탄한 학회를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여러 업적으로 1988년에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으셨습니다.

연구논문도 많이 내시어 회갑기념 논문집이 상당히 두꺼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퇴임까지 약 70여 편 논문을 내셨고, 석박사 제자들 60여 명은 국내외에서 기업 임원, 대학교수, 연구원, 공무원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알겠지만, 조용한 어조의 강의는 논리 정연하셨고,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토요일에도 늦게 퇴근하시니, 석박사 과정 제자들도 늦게 퇴근하면서 조금이라도 책을 더 보면서 공부하였을 겁니다. 지나고 나니 토요일 오후에 연구실에 있다가 교수님께 퇴근 인사드린다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던 호칭이 귓가에 들리는 듯 합니다. “미스터 ~”. 퇴근하실 때 남아있는 제자에게 “미스터 ~, 먼저 나가요.” “교수님,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이런 대화를 나누던 시절이 저희에게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세미나 준비가 소홀하거나 논문 준비가 미흡해도 크게 야단치지 않으시고, 준비가 좀 더 잘 되도록, 마음가짐을 바로 갖도록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논문 지도하실 때 독창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기에 더 많이 공부가 되었습니다. 꼼꼼함, 세심함, 자상함을 두루 갖추셨던 스승님, 벌써 많이 그립습니다.

2024년 6월 19일 발인하는 날 새벽, 여명이 붉은 기운이 도는 걸 보니 해가 솟을 듯 했고 곧 아침이 되었습니다. 슬픈 아침이었습니다. 여름 날씨이지만 새벽, 아침 공기는 선선하고,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낭랑했습니다. 장지까지 가는 길, 영정사진을 볼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유족들과 선영이 있는 일산시 고양군 장지에 도착하니 더웠습니다. 시원한 생수 한 병을 뚜껑 열어 놓아드리고 작별인사를 드렸습니다.

사모님, 2남 1녀 자녀분, 자부 두 분, 사위분, 손과 외손 다섯 분 유족 여러분께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연구, 강의에 몰두 하실 수 있도록 내조하여 주시어 저희 제자들이 좋은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쓸 수 있었습니다. 슬픔 이겨내시고 건강하시기 기원 드립니다.

김진우 교수님, 평안하게 영면하십시오. 가르침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6월 21일 깊은 밤
염색가공연구실 제자들,
시원치 않았던 제자 박윤철 올림

